

1. <보기>와 같은 활동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?

< 보 기 >

[활동 과제]
 음운 변동의 유형에는 ‘교체’, ‘탈락’, ‘첨가’, ‘축약’이 있다.
 ㉠: 교체 -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
 ㉡: 탈락 -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
 ㉢: 첨가 -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현상
 ㉣: 축약 - 두 음운이 합쳐져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

다음 사례가 ㉠ ~ ㉣ 중, 어떤 음운 변동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자.
 옷하고[오타고] 훌이불[훈니불]

	옷하고[오타고]	훌이불[훈니불]
①	㉠, ㉢	㉠, ㉡
*②	㉠, ㉣	㉠, ㉢
③	㉠, ㉣	㉡, ㉢
④	㉡, ㉢	㉡, ㉣
⑤	㉡, ㉢	㉢, ㉣

2. <보기>의 ㉠ ~ ㉣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?

< 보 기 >

선생님: 어간은 용언의 활용 시 변하지 않는 부분을, 어근은 단어 분석 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가리킵니다.

용언	어간	어근
숫다 (단일어)	숫-	숫-
치숫다 (파생어)	치숫-	숫-
쌈숫다 (합성어)	쌈숫-	쌈, 숫-

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용언이 단일어일 경우 어간과 어근이 일치합니다. 하지만, 용언이 파생어나 합성어일 경우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음 세 단어의 어간과 어근을 분석해 볼까요?

용언	어간	어근
줄이다	줄이-	㉠
힘들다	힘들-	㉡
오가다	오가-	㉢

	㉠	㉡	㉢
①	줄이-	힘들-	오가-
②	줄이-	힘들-	오-, 가-
③	줄-	힘들-	오가-
*④	줄-	힘, 들-	오-, 가-
⑤	줄-	힘, 들-	오가-

3. <보기>의 담화 상황으로 볼 때, ㉠ ~ ㉣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 보 기 >

A: 영희가 말도 없이 책을 가져갔다고 민수가 화가 많이 났더라. 그런데 ㉠ 그것이 사실이야?
 B: 아니, 내가 영희에게 민수 말이 맞느냐고 물어봤는데, ㉡ 자기는 분명히 말하고 가져갔다고 그러더라.
 A: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됐나 보다. ㉢ 아무나 좋으니 일단 나서서 민수와 영희의 오해를 풀어주는 게 좋겠다. 그나저나 어제 저녁에 교실에 있었던 애들이 ㉣ 누구였는지 기억나?
 B: 나도 ㉤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.

- *① ㉠은 ‘민수가 화가 많이 난 것’을 간단히 표현하려고 사용한 대명사이다.
- ② ㉡은 B가 앞서 언급한 ‘영희’를 도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대명사이다.
- ③ ㉢은 화자가 불특정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대명사이다.
- ④ ㉣은 화자가 지시 대상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사용한 대명사이다.
- ⑤ ㉤은 A가 앞서 언급한 ‘교실’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대명사이다.

4. 다음은 ‘달다’에 관한 사전 자료의 일부분이다. 이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 보 기 >

달다¹ ㉠ [···에 ···을] [달아, 다니, 다오]
 ㉠ 물건을 일정한 곳에 걸거나 매어 놓다.
 예 배에 돛을 달다.
 ㉡ 이름이나 제목 따위를 정하여 붙이다.
 예 작품에 제목을 달다.

달다² ㉢ [달아, 다니, 다오]
 ㉢ 꿀이나 설탕의 맛과 같다.
 예 아이스크림이 달다. ㉣ 달면 삼키고 쓰면 뺏는다.
 ㉣ 흡족하여 기분이 좋다.
 예 나른한 식곤에 잠이 달았다.

- ① ‘달다¹’과 ‘달다²’는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된 걸 보니 동음이의어에 해당하는군.
- ② ‘달다¹’과 ‘달다²’는 모두 연결 어미 ‘-니’가 결합되면 ‘다니’로 활용되는군.
- *③ ‘달다¹’ ㉠의 용례로 ‘소금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 보았다.’를 추가할 수 있겠군.
- ④ ‘달다²’ ㉢의 속담은 ‘달다’와 ‘쓰다’의 반의 관계를 이용한 것이군.
- ⑤ ‘달다¹’ ㉡은 ‘달다²’ ㉣보다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더 많군.

5. <보기>를 참고하여 ㉠~㉣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 보 기 >

문장은 동작이나 행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능동문과 피동문으로 나누어진다.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문장을 능동문이라고 하고,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영향을 받는 문장을 피동문이라고 한다.

	능동문	피동문
㉠	눈이 온 세상을 덮었다.	온 세상이 눈에 덮였다.
㉡	두 학생이 참새 네 마리를 잡았다.	참새 네 마리가 두 학생에게 잡혔다.
㉢	낙엽이 바람에 난다.	낙엽이 바람에 날린다.
㉣	해당 사례 없음.	오늘은 날씨가 갑자기 풀렸다.

- ① ㉠의 피동문은 능동문에 비해 주어의 동작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.
- ② ㉠과 ㉣은 모두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에서 부사어로 나타나는 사례이다.
- *③ ㉡과 ㉢은 모두 능동문과 달리 피동문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.
- ④ ㉢은 자동사를 피동사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.
- ⑤ ㉣은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.

6. <보기>는 겹받침 ‘ㄹ’의 표준 발음 규정을 정리한 것이다. ㉠~㉣ 각각에 해당하는 표준 발음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 보 기 >

㉠ ‘ㄹ’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[ㄱ]으로 발음한다.

㉡ 용언의 어간 말음 ‘ㄹ’은 ‘ㄱ’ 앞에서 [ㄹ]로 발음한다.

㉢ 받침 ‘ㄹ’이 뒤 음절 첫소리 ‘ㅎ’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과 ‘ㅎ’을 합쳐서 [ㄱ]으로 발음한다.

㉣ ‘ㄹ’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,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,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.

㉤ 받침 ‘ㄹ’은 ‘ㄴ, ㄷ’ 앞에서 [ㅇ]으로 발음한다.

- ① ㉠: 햇살이 눈부시게 밝다[박따].
- ② ㉡: 밝게[발게] 웃으며 인사하다.
- ③ ㉢: 그는 진실을 세상에 밝혔다[발켄따].
- *④ ㉣: 전등의 밝기[발끼]를 낮추다.
- ⑤ ㉤: 동쪽에서 날이 밝는다[방는다].

7. <보기>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설명이다. 한글 맞춤법 조항의 내용과 ㉠, ㉡을 적절하게 연결하지 못한 것은?

< 보 기 >

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㉠ 소리대로 적되, ㉡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.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의 발음대로 적는다는 뜻이다. 그리고 각 형태소가 지닌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, 그 본 모양을 밝혀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추가되었다.

- | | | |
|---|--|---|
| ① | ‘ㄷ, ㅌ’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‘-이(-)’나 ‘-히-’가 올 적에는, 그 ‘ㄷ, ㅌ’이 ‘ㅈ, ㅊ’으로 소리 나더라도 ‘ㄷ, ㅌ’으로 적음. | ㉡ |
|---|--|---|

	예) 만이, 굳이, 묻히다	
*②	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‘ㄴ’은 ‘ㄴ’으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‘ㄴ’으로 적음. 예) 희망, 하늬바람	㉠
③	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음. 예) 떡이, 손이, 팔이	㉢
④	어간에 ‘-이’나 ‘-음’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함. 예) 목거리(목병), 노름(도박)	㉠
⑤	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음. 예) 꽃잎, 헛웃음, 굶주리다	㉢

8. ㉠~㉣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 보 기 >

문장을 어법에 어긋나거나 부자연스럽게 사용한 대표적 유형으로는, ㉠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, ㉡ 부사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, ㉢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부적절하게 생략된 경우, ㉣ 서술어가 부적절하게 생략된 경우, ㉤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되는 경우 등이 있다.

- ① ㉠: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행동하자.
- ② ㉡: 새벽에 잠을 깬 사람은 비단 나뭇잎이었다.
- ③ ㉢: 나는 집에 오자마자 들고 있던 가방을 두었다.
- ④ ㉣: 새로 산 자동차에 짐과 동생을 태우고 여행을 떠났다.
- *⑤ ㉤: 착한 너의 후배를 나한테 빨리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.

9. ㉠~㉣을 현대 국어와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 보 기 >

[중세 국어] ㉠ 부테 目連(목련)이드려 ㉡ 니르샤되
[현대 국어] 부처가 목련에게 이르시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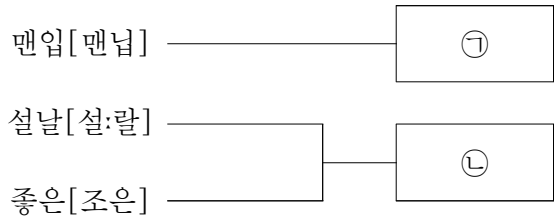
[중세 국어] 耶輸(야수) | ㉢ 부텃 使者(사자) 왔다 ㉣ 드르시고
[현대 국어] 야수가 부처의 사자가 왔다는 말을 들으시고

[중세 국어] 내 쫄 勝鬘(승만)이 聰明(총명)하니 부터웃
㉤ 보스븐면
[현대 국어] 내 딸 승만이 총명하니 부처만 비면
- 『석보상절』 -

- ① ㉠: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주격 조사 ‘이’가 결합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.
- *② ㉡: 고유어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.
- ③ ㉢: 관형격 조사로 ‘사’이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.
- ④ ㉣: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.
- ⑤ ㉤: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.

10. 다음은 '음운의 변동'과 관련된 학습지의 일부이다. ㉠과 ㉡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?

음운의 변동은 어떤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. 음운의 변동은 그 결과에 따라 교체, 축약, 첨가, 탈락으로 나눌 수 있다. 이러한 음운의 변동은 한 단어에 2개 이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.



1. ㉠에는 '맨입'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음운의 변동이 일어난 단어를 자료에서 찾아 쓴다.
2. ㉡에는 '설날'을 발음할 때와 '좋은'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음운의 변동이 함께 일어난 단어를 자료에서 찾아 쓴다.

자료
 논일[논닐], 나뭇잎[나문닙], 갈날[갈랄]
 늦여름[느녀름], 닿은[다은], 닳는[달른]

- | | | |
|----|--------|----------|
| | ㉠ | ㉡ |
| ① | 논일[논닐] | 늦여름[느녀름] |
| ② | 닿은[다은] | 닳는[달른] |
| ③ | 갈날[갈랄] | 나뭇잎[나문닙] |
| *④ | 논일[논닐] | 닳는[달른] |
| ⑤ | 닿은[다은] | 갈날[갈랄] |

11. 다음은 접사와 어근의 결합 양상에 대해 수업 중 발표한 내용이다.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[발표 내용]

발표 1: 어근에 접두사가 결합되면 어근에 의미가 더해집니다. 예를 들어 '선무당'은 어근 '무당'에 접두사 '선-'이 결합하여 '서툰'이라는 의미가 더해진 것입니다. '군말', '군살'도 그 예에 속합니다.

발표 2: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되면 어근에 의미가 더해집니다. 예를 들어 '피보'는 어근 '피'에 접미사 '-보'가 결합하여 '그것을 즐기거나 그 정도가 심한 사람'의 의미가 더해진 것입니다.

발표 3: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하면 품사가 바뀌기도 합니다. 예를 들어 '사랑'은 '-하다'가 붙으면 명사에서 동사로 품사가 바뀝니다.

- ① '발표 1'의 내용 중 '군말', '군살'의 '군-'은 '쓸데없는'의 의미를 어근에 더해 주는군.
- ② '발표 1'과 '발표 2'를 종합해 보면, 접두사와 접미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군.
- ③ '발표 2'의 단어에 '멋쟁이', '장난꾸러기'를 더 추가할 수 있겠군.
- *④ '발표 2'와 '발표 3'을 종합해 보면, '피보'는 '-보'에 의해 의미가 더해지고 품사가 바뀌었군.
- ⑤ '발표 3'에는 '숙제하다'를 더 추가할 수 있겠군.

12. <보기>의 ㉠~㉣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 기>

- 영수는 ㉠ 집에 가기를 원한다.
- 친구는 ㉡ 밥을 먹기에 바쁘다.
- 영희는 ㉢ 동생이 산 빵을 먹었다.
- 그는 ㉣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모른다.

- ① ㉠은 조사 '를'과 결합하여 안은 문장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.
- ② ㉡은 조사 '에'와 결합하여 안은 문장의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다.
- ③ ㉢은 안은 문장의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형절이다.
- ④ ㉣과 달리 ㉣의 주어는 안은 문장의 주어와 다르다.
- *⑤ ㉣과 달리 ㉣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안은 문장의 목적어이다.

13. <보기>에 제시된 국어사전의 정보를 완성한다고 할 때, ㉠~㉣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 기>

주다

㉠ **동사**

- ① 【...에/에게 ...을】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. ¶ 친구에게 선물을 주다.
반의어 주다 ↔ ㉠
- ② 남에게 어떤 자격이나 권리, 점수 따위를 가지게 하다.
¶ 일등 항해사에게 가산점을 주다. / ㉡
- ③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게 하다. ¶ 동생과 싸웠다고 어머니가 나에게 핀잔을 주다. / ㉢

받다

㉣ **동사**

- ① 【...에서/에게서/...으로부터 ...을】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. ¶ 남자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다.
- ② 【...을】 공중에서 밑으로 떨어지거나 자기 쪽으로 향해 오는 것을 잡다. ¶ 날아오는 공을 받다.
반의어 받다 ↔ ㉣
- ③ 【㉣】 흐르거나 쏟아지거나 하는 것을 그릇 따위에 담기게 하다. ¶ 따끈한 차를 찻잔에 받다.

- ① '주다' ㉠의 뜻풀이와 용례로 보아 ㉠에 들어갈 말은 '받다' ㉣이다.
- *② ㉡에는 '약을 사 먹으라고 누나가 나에게 돈을 주다.'를 넣을 수 있다.
- ③ ㉢에는 '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다.'를 넣을 수 있다.
- ④ '받다' ㉣의 용례로 보아 ㉣에는 '던지다'를 넣을 수 있다.
- ⑤ ㉣에 들어갈 말은 '...을 ...에'이다.

14. <보기>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 기>

[표준발음법]

제18항
 받침 'ㄱ(ㄱ, ㅋ, ㆁ, ㄷ, ㄷ(ㅅ, ㅆ, ㅈ, ㅊ, ㅌ, ㅎ), ㄴ(ㄴ, ㄹ, ㄹ(ㅁ, ㅂ))'은 'ㄴ, ㄹ' 앞에서 [ㅇ, ㄴ, ㄹ]으로 발음한다.

제23항
 받침 'ㄱ(ㄱ, ㅋ, ㆁ, ㄷ, ㄷ(ㅅ, ㅆ, ㅈ, ㅊ, ㅌ, ㅎ), ㄴ(ㄴ, ㄹ, ㄹ(ㅁ, ㅂ))' 뒤에 연결되는 'ㄱ, ㄷ, ㄴ, ㅅ, ㅈ'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

- ① '앞마당'은 18항이 적용되어 [암마당]으로 발음된다.

- ② ‘늦가을’은 23항이 적용되어 [느까을]로 발음된다.
- *③ ‘꽃망울’은 18항과 23항이 모두 적용되어 [꼰망울]로 발음된다.
- ④ ‘맛떡다’는 18항과 23항이 모두 적용되어 [만떡따]로 발음된다.
- ⑤ ‘홀낚시’는 18항과 23항이 모두 적용되어 [혼낙씨]로 발음된다.

15. ㉠~㉣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 기>

원래 문장	표현하려는 의미	수정한 문장
현우는 새로 산 옷을 입고 있다.	옷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고자 함.	㉠
영철이는 지수보다 야구 경기를 더 좋아한다.	영철이가 더 좋아하는 것은 지수가 아니라 야구 경기임.	㉡
친구들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.	친구들이 일부만 참석함.	㉢
민수는 아침에 윤서가 여행에서 돌아왔다고 말했다.	돌아온 사실을 말한 시점이 아침임.	㉣
그는 내게 장미와 튤립 두 송이를 주었다.	받은 꽃의 개수가 세 송이임.	㉤

- ① ㉠: 현우는 새로 산 옷을 입고 있는 중이다.
- ② ㉡: 영철이는 지수를 좋아하는 것보다 야구 경기를 더 좋아한다.
- ③ ㉢: 친구들이 약속 장소에 다는 나오지 않았다.
- *④ ㉣: 윤서가 아침에 여행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민수는 말했다.
- ⑤ ㉤: 그는 내게 장미 한 송이와 튤립 두 송이를 주었다.

16. <보기>에 제시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?

<보 기>

선생님: 지난 시간에 부사화 접미사 ‘-이’와 ‘-히’의 표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. 한글맞춤법 51항의 해설을 통해 ‘-하다’가 붙지 않는 용언의 어간이나 ‘ㅅ’받침 뒤에서는 ‘-이’로 적는다고 배웠는데, 여기에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가 더 제시되어 있습니다.

㉠ (첩어 또는 준첩어인) 명사 뒤 예) 살살이, 다달이
 ㉡ 부사 뒤 예) 더욱이, 허죽이
 ㉢ ‘ㅅ’ 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 예) 가벼이, 새로이

판서 내용을 참고하여, 다음의 단어들을 ㉠~㉢로 구분해 봅시다.

나날이, 오뚝이, 일찍이, 즐거이, 겹겹이

- | | ㉠ | ㉡ | ㉢ |
|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① | 나날이, 오뚝이 | 일찍이 | 즐거이, 겹겹이 |
| ② | 나날이, 즐거이 | 겹겹이 | 오뚝이, 일찍이 |
| *③ | 나날이, 겹겹이 | 오뚝이, 일찍이 | 즐거이 |
| ④ | 오뚝이, 겹겹이 | 일찍이, 즐거이 | 나날이 |
| ⑤ | 겹겹이 | 오뚝이, 즐거이 | 나날이, 일찍이 |

17. <보기1>을 바탕으로 <보기2>의 ㉠~㉣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 1>

지칭어와 호칭어, 높임 표현이 발달한 우리말에서는 특히 담화 상황에서 화자, 청자,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. 다른 사람에게 그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인 지칭어와 그 대상을 직접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인 호칭어를, 화자와 청자, 담화에 언급된 대상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. 또한 높임 표현은 청자나 담화 속 주체와 객체의 높임 관계를 고려하여 어미, 조사, 어휘 등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.

<보기 2>

혜연: 삼촌, 어서 오세요. 좀 늦으셨네요?
삼촌: 생각보다 차가 밀리더구나. 다들 오셨니?
혜연: 아니요. 차가 밀리는지 ㉠ 할머니께서도 아직 도착하지 못하셨어요.
삼촌: ㉡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?
혜연: ㉢ 할아버지를 모시고 조금 전에 결혼식장에 들어가셨어요.
삼촌: 아침부터 너희 ㉣ 어머니께서 많이 바쁘셨겠네. 너도 언니 결혼식 때문에 옆에서 이것저것 도와주느라 힘들었지?
혜연: 아니에요. 그것보다 삼촌께서 이렇게 멀리서 와 주셔서 ㉤ 언니가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.

- ① ㉠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기준으로 대상을 파악하여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군.
- ② ㉡에서 문장의 주체는 화자가 높여야 할 대상이므로 특수한 어휘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고 있군.
- *③ ㉢에서 문장의 객체는 화자가 높여야 할 대상이므로 조사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고 있군.
- ④ ㉣에서는 화자가 청자를 기준으로 대상을 파악하여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군.
- ⑤ ㉤에서는 청자가 화자보다 높은 대상이므로 종결어미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고 있군.

18. <보기>의 ㉠~㉣에서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 기>

㉠ 雙鵬(쌍조) | 혼 사래 ㉡ 빼니 絶世(절세) 英才(영재) 를 邊人(변인)이 拜伏(배복) ㉢ ㅎ사브니
 [현대어 풀이]
 두 마리 독수리가 한 살에 꿰이니, 절세의 영재를 변방의 사람들이 절하며 복종하니

雙鵲(쌍작)이 혼 ㉣ 사래 ㉤ 디니 曠世(광세) 奇事(기사) 를 北人(북인)이 稱頌(칭송) ㅎ사브니
 [현대어 풀이]
 두 마리 까치가 한 살에 떨어지니, 세상에 없는 기이한 일을 북녘 사람들이 칭송하니
 - 「용비어천가(龍飛御天歌)」 <제23장> -

- *① ㉠을 보니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목적격 조사로 ‘ㅣ’가 사용되었군.
- ② ㉡을 보니 음절의 초성에서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사용되었군.
- ③ ㉢을 보니 ‘△’, ‘ㅃ’, ‘ㅆ’ 등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문자가 사용되었군.
- ④ ㉣에서 양성 모음 ‘ㅏ’와 ‘ㅑ’가 어울리는 것을 보니 모음조화가 지켜졌군.
- ⑤ ㉤에서 ‘ㅣ’ 앞의 ‘ㄷ’이 ‘ㅌ’으로 변하지 않은 것을 보니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군.